

# 김영란법 식사비 인상에도...광주 식당가는 '시큰둥'

### 추석 앞두고 3만→5만원으로...고물가·매출 부진에 별 효과 없어 일부 환영 속 영세식당 업주 "고급식당만 재미볼 것" 불멘소리

'김영란법' 개정으로 식사비가 5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도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광주지역 공공청사 앞 자영업자들은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식제공 비용 인상은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8년여만이다. 하지만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청 인근인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5년째 흥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숙(여·65)씨는 "정식 메뉴가 5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면서 "경기 침체로 손님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상한이 올라갔다고 소비가 늘겠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이후 회식이 사라지는 추세인데다 최근에는 고물가에 점심시간조차 손님이 줄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호소다. 인근 장어 식당 사장인 이모(여·62)씨 역시 "3만

원이 비현실적인 금액이었던만큼 5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고급요릿집 외에 큰 영향 있을까 싶다. 1만 2000원 하는 국밥조차 부담스러워하는데 한끼에 3만원, 5만원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김영란법에서 식사비를 인상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손님 자체가 줄어 효과가 의문이다", "관공서 주변 고급 식당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복어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4)씨는 "전기료, 가스비, 식자재값 등 모든 게 오르는 상황에서 손님들은 갈수록 줄고있다"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 언제까지 버

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근에서 양대창 식당을 운영하는 신모(여·60)씨는 "벌써 1년 전보다 직원 수를 3분의 1 가까이 줄였지만 아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장사를 할수록 적자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인테리어, 권리금 등에 투자한 돈이 있고 폐업 비용이 더 나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외에 경조사비·선물(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병일 15만원, 명절 30만원) 가액 범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추석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이 적용된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검찰, 숙소 동료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건방지다'며 동료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23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여만에 결국 숨졌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로, 이날 B씨는 몸을 씻기

위해 숙소를 들렀다가 A씨와 술자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건방지다고 생각했고 잠이 든 B씨를 죽이려 2차례 불을 질렀지만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아 흉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인명을 경시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23년형은 가석방이 가능한 점을 보면 가볍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광주고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이웃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60대 숨진 채 발견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순군 사평면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화순군 사평면의 한 밭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야

산으로 도주했다. 동네 이웃 사이인 A씨와 B씨는 평소 잦은 말다툼 등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인 A씨가 고추밭에서 일하는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수천만원 수강료 받고 먹튀 필라테스 대표 송치

필라테스 선결제 할인 이벤트로 수강생 100여 명에게 수강료를 받아 갹진 뒤 잠적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북부경찰과 광주광산경찰은 각각 필라테스 대표 3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선결제 할인 이벤트를 열고 회원들에게 1인당 60여만원의 수강료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시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우산동에

서 2곳의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 30일 경영난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폐업 통보 문자를 보냈으며 통보 직전까지도 선결제를 받으며 수강생을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 필라테스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다 직원 인건비와 기구 구매비 등으로 지출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만 10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테러 진압 이렇게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훈련이 10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려 선수단이 탑승한 버스가 납치된 상황을 가정한 경찰특공대가 진압하는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 하사관이 공군부대 명의 거래...외상 미지급했다면?

### 광주지법 "공무원 외상거래 업무지침 위배...국가 배상 책임 없어"

공군 하사관이 '공군부대' 명의를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외상거래한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공무원의 외상거래는 업무지침에 위배 된다며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께 2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광주에 소재한 공군부대 소속 하사관 B씨에게 판매했다. A씨는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갚지 않자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3월께 B씨와 350만원 상당의 상품권 거래를 했고 당시 입급자명이 '공군부대'로 적혀있어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도 손해배

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를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기각하자 A씨는 정부를 상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외상거래를 하는 것은 내부 업무지침에 위반된다. 그 자체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거나 공문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